

## 예약 판단 기준

### 제1조(적용 범위)

1. 본 세칙은 KAIST 학생문화공간위원회(이하 본회)가 담당하는 공간에 대한 예약을 심의할 때 기준이 된다.

### 제2조(명칭)

1. 행사 예약자는 본회의 예약 시스템을 통해 행사를 예약한 개인 혹은 단체를 의미한다.
2. 행사 주최자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단체를 의미한다.  
주최자는 예약자와 다를 수 있다.

### 제3조(예약자)

1. 행사 예약자와 행사 주최자는 기본적으로 학생, 교원을 포함한 교내 구성원으로 한다.
2. 행사 주최자가 교내 구성원이 아닌 경우 본회의 관리팀 회의나 본회의 전체회의를 거쳐 심의한다.
3. 예약의 우선권은 기본적으로 예약 시간이 빠른 경우로 하지만, 가치가 충돌할 때  
1순위 : 행사주최자가 학부총학생회 회원인 경우 2순위 : 행사주최자가 대학원생, 혹은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학부생인 경우 3순위 : 행사주최자가 교직원인 경우 로 판단한다.

### 제4조(영리성)

1. 본회가 영리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행사 예약자나 행사 주최자가 판매 행위를 하여 현물이 오가는 경우
  - b. 행사 예약자나 행사 주최자가 특정 개인 혹은 단체의 상품에 대한 상업성 홍보를 진행하는 경우
  - c. 행사 예약자나 행사 주최자가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할 경우
  - d. 행사 예약자나 행사 주최자가 외부 기업의 스폰서, 후원을 받는 행사일 경우
  - e. 그 외 해당 행사가 영리성이 있다고 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판단한 경우
2. 영리성을 띄고 있는 경우 예약을 취소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공간 담당 팀의 논의 및 의결을 통해 예약을 심의할 수 있다.
  - a. 발생한 수익의 전액이 학생 문화 증진에 사용된다는 근거를 제출해야하며, 그 후 예약 판단을 위한 의결을 관리팀회의 혹은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진행해 가결된 경우
    - i. 그 근거는 예상 수익 금액과 그 수익 금액 중 어떤 항목으로 문화 증진에 사용될 지를 비율을 명시한 계획안을 말한다
  - b. 행사의 질서를 위한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행사일 때 본회에서 예약 판단을 위한 관리팀회의 혹은 본회의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진행해 가결된 경우
3. 행사 예약자는 행사가 영리성이 있는지, 행사에 얻는 수익이 문화 증진에 사용되는 것이 맞는지 등에 대한 모든 판단 권한을 본회에 위임해야한다.
  - a. 단, 같은 행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소명 자료와 함께 판단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5조(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 저해)

1. 본회가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종교적, 정치적 내용이 포함되거나 논쟁거리가 충분한 행사

- i. 단, 본교 학부 동아리연합회 종교 본과 동아리들에 한하여 관리팀과 협약서를 작성 후 일정 기간 동안 공간에 대해 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 b. 그 외 해당 행사가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관리팀회의 및 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판단한 경우
- 2.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본회에서 심의한다. 해당 공간 담당 팀의 논의 및 의결을 통해 예약을 허용할 수 있다.
  - a. 행사 내용에 대해 관리팀과 사전에 조율한다.
  - b. 제출된 서류 혹은 소명 자료를 바탕으로 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심의한다.
- 3. 행사가 논란을 일으킬 때 본회는 본회의 판단으로 행사를 중단시킬 수 있다.
- 4. 행사 예약자는 행사가 공공의 질서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지 등에 대한 모든 판단 권한을 본회에 위임해야한다.
  - a. 단, 같은 행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소명 자료와 함께 판단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6조(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1. 본회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a. 주류가 반입되는 행사
    - i. 단, 각 공간 운영 세칙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 b. 행사 참여자 중 외부인의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행사
  - c. 그 외 해당 행사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된다고 관리팀회의 혹은 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판단한 경우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약을 취소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관리팀회의 혹은 본회의 전체회의를 통해 예약을 심의할 수 있다.
  - a. 행사 예약자가 물품 파손에 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경우
- 3. 행사 예약자는 행사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되는지 등에 대한 모든 판단 권한을 본회에 위임해야한다.
  - a. 단, 같은 행사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소명 자료와 함께 판단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제7조(패널티)

- 1. 다음과 같은 경우 행사 예약자와 행사 주최자는 경고 없이 해당 행사일자로부터 365일동안 본회가 담당하는 모든 공간에 대한 예약을 금한다.
  - a. 영리성을 띄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행사를 진행한 경우
  - b.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할 요소를 갖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행사를 진행한 경우
  - c.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될 요소를 갖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행사를 진행한 경우